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 호스피스 팀 · 마리아 병동 7주년 기념행사



5월 7일 호스피스팀과 마리아 병동의 오픈 7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연혁 동영상 상영과 병원장 김현수 신부의 축사 영상 및 케이크 커팅식, 호스피스 마스크트 '호찌'의 제막식으로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김현수 신부는 "7년 동안 존엄한 삶의 마감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마리아 병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통증 캠페인



5월 21일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 및

보호자·내원객을 대상으로 통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암성통증에 대한 소개 및 교육, OX 퀴즈, 병원 내원객을 대상으로 암성통증 관련 영상물과 리플릿 및 기념품 등을 배부하며 암성통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활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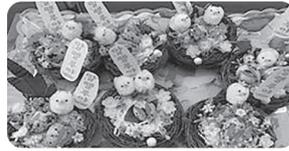
▶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지킴이 '호찌' 마스크트 제작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지킴이 '호찌' 마스크트가 제작되었다. 호찌는 환자 및 가족에게 "편안함_Comfort"를 느끼도록 돕는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호스피스 귀염둥이이다. 앞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더욱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호찌'와 함께 헤 나갈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부활 맞이 '부활 동지 만들기'



4월 2일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병아리와 메추리알로 장식한 부활 동지를 만들었다. 양증맞은 동지를 보며 환자와 가족들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어버이날 선물 나누기



5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생활을 자주 보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카네이션 화분을 선물하였다. 또한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와 석고 방향제를 직접 만들어 알록달록한 색과 다양한 향기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 통증 캠페인



5월 25일 '암성통증, 말하면 줄어듭니다.'라는 주제로 본원 1층 로비에서 통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호스피스에 선입견을 갖고 있던 내원객들에게 암성통증에 대한 오해를 푸는 문제들을 통해 호스피스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성모병원

▶ 세계병자의 날 행사, 설날 행사



2월 10일 세계병자의 날에 본 호스피스에서도 성모님의 간구를 청하였다. 병동의 환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손 글로 읊긴 카드로 마음을 전하면서 더불어 새해 첫날도 축하하며 마스크 외 위생용품, 코로나 예방 물품 키트 등 환자분들에게 실제 필요한 물품을 선물하며 오늘을 함께 하는 동행인으로서 축제의 장을 가져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

▶ 부활 축하 특식 제공 및 부활 계란, 쿠키 선물



4월 6일 부활절을 축하하며 환자와 가족, 팀원들과 함께 아가페 식사 시간을 마련하였다. 코로나로 올

해도 개인 도시락으로 제공하였으며, 오랜 병상 생활 동안 자주 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만든 따듯한 집밥을 기억하며 가슴을 채우면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삶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부활 계란, 쿠키 선물은 원목사제께서 직접 나눔을 하며 함께 하였다.

▶ 호스피스 캠페인



5월 24일 암성 통증 완화와 조절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코로나로 원내에서 내원객 및 원내 가족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통증 완화 증상 조절에 대한 설명과 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기념품 제공도 하였다.

▶ 자원봉사자 월 모임

3월 15일, 4월 19일, 5월 24일, 6월 21일 코로나로 봉사활동의 중단과 침체가 자칫 봉사자 개인에게도 삶의 정체로 이어지는 우려도 보이는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하에 월 모임을 통한 봉사자 간 만남과 정보는 침체된 환경의 환기도 도모하며 활동의 감을 잃지 않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병동 축성식



1월 8일 호스피스가 리모델링된 병동으로 이전하여 축성식을 시행하였다. 많은 교

직원의 관심과 기도 안에서 축성식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병동에서 더욱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부활 행사



4월 1일 부활 대축일을 맞아 함께 부활을 기뻐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다과와 선물을 전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가족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팀원들이 환자와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환자와 가족의 모습을 촬영하여 인화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위한 안내서' 책자 발간



1월 사별지지팀은 사별가족모임을 대신해 좀 더 체계적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가정에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위한 안내서'를 발

간하였다. 이 책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사별의 여정을 걷는 가족들이 이별의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서이다. 상실의 아픔을 단계별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도 하며 약 1년간의 사별의 여정 속에서 시기에 맞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돕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 **통증 캠페인 '암성 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매년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증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코로나 19로 의료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Zoom)교육으로 76명의 간호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암 환자의 통증 조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박명희 수간호사의 통증 관리 강의로 진행하였으며, 암병동,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암성 통증 조절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또한 캠페인 홍보 기념품으로 접착 메모지와 마스크, 손 소독 스프레이를 제작하여 원내 유관 부서와 호스피스병동 환자,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Zoom 회의



비대면 봉사자 회의를 zoom을 통해 실시하면서, 개인의 영성 생활에 대해 나눔도 가지고 있다.

▶ 감사의 손편지

어려운 시기에도 한결같은 정성과 격려를 보내주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편지와 카드를 보냈다.

▶ **성모의 날**



거리 두기를 하며 50여 명의 환자와 가족, 봉사자들이 성모님을 모시고 싱그러운 5월의 프락에서 찬미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박규식 암브로시오신부님의 주례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노래와 묵주기도에 소원을 담아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찬미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가정의 달 뽑기 이벤트**



5월 7일 입원 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매달 진행 중인 뽑기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이벤트를 통해 힘을 얻고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으며, 환자들이 직접 뽑기권을 뽑아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을 읽으며 간병 중인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20주년 기념 사진전**



5월 1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개설 2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본원 자체적으로 내원객 및 교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준비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My Life'를 주제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의 일상과 추억을 담은 사진 작품과 영상으로 구성돼 지난 20년간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통증 캠페인**

5월 27일 본원 암 병원에서 환자 및 교직원을 대상으



로 통증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통증 OX 퀴즈를 통해 암성통증 조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필요성을 알렸으며, 암성통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리플렛 및 기념품을 배부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부활 맞이 음악회 & 선물 나눔 & 식사



4월 9일 코로나로 지친 환자와 가족을 위해 병동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아빠를 보내는 어린 자녀와 호스피스 병동에 처음 온 환자, 우울해하는 환자나 가족이 피아노와 첼로 연주에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 사별가족 모임 미사



4월 9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임종하신 44명의 환자를 생각하며 사별 가족을 위한 미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9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겪는 상실의 아픔을 생각하여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드렸다.

▶ 행복한 동행 생신 파티 (김○철님/최○선님)



5월 7일, 13일 집에서 생신을 지내고 입원할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런 상태 저하로 입원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어 속상했지만, 환자가 듣고 느낀다고 하니 마음이 안정되어 좋다고 하셨다.

▶ 요법 대체 프로그램 - 비누/다크초콜릿/석고 방향제 만들기

코로나19로 요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입원 생활에서

잠시나마 힘들음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고, 칭찬하는 시간이었다.

▶ 홍보 활동 통증 캠페인



6월 3일~7일 교직원은 cmcnu 그룹피드, 내원객, 직원은 1층 로비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하였다. 1,020명이 참석하여, 암성 통증은 조절될 수 있고, 중독되지 않음을 홍보하였다. 암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일반내원객, 교직원들의 관심 속에 참여하였고 홍보용품인 에코백, 수건, 물티슈, 마스크, 리플렛을 제공하였다.

익산성모병원

▶ 부활절 작은 음악회



4월 2일 부활절 행사로 병동 환자들과 가족, 직원이 모인 가운데 방사선과 송지는 주임이 준비한 부활성가 4곡을 바이올린 독주로 연주하여 서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 소원 들어 드리기



4월 2일 ○○남님이 평소 가고 싶어 하시던 내장산을 아드님을 초대하여 동행하며 벚꽃 가로수 길이 하늘에 맞닿아 꿈의 궁전을 들어가는 분위기가 참 좋았다. 내장사 입구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가 벚꽃 산책로를 아들과 손잡고 거닐면서 행복한 나들이가 되었다.

▶ 어버이날 행사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병상에서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께 노래와 꽃과 과일을 선물하고 대접해 드렸다.

▶ 교육, 회의

전북호스피스지역암센터 주관으로 4월 8일 2021년도 사업계획 안내, 4월 15일 질 향상 교육, 6월 18일 전북 지역 실무자 간담회가 ZOOM 회의로 6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팀원 소진 프로그램

팀원들이 코로나19로 외부로 나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해 집에서 “꽃을 키우고 가꾸고 바라보며 마음 치유하기”로 하였다. 정해진 화원에서 꽃을 선정하여, 한 달 후 키운 꽃의 사진을 찍어 나눔의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예쁘게 키워 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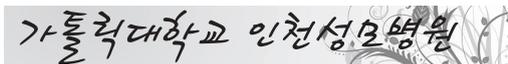
▶ 가족과 추억 남기기



4월 30일 환자 2명, 보호자 4명과 함께 과일 주스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아프신 분들이 보호자와 함께 나오셔서 생기를 띄며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시는 중에 재료가 신선하고 맛이 있었다는 품평도 하였다.

▶ 교육 자료 출시

2주 간격으로 화요일 오후 3시에 영상을 통해 보호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에 소책자를 만들어 병행하도록 하였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가져가서 볼 수 있게 배려하였다.



▶ 설날기념 이벤트

2월 9일 호스피스병동에서 설을 맞이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해 설날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 부활절 이벤트

4월 1일 부활절을 기념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과 함께

계란 꾸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직접 만든 계란을 서로에게 선물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7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감사와 사랑의 의미를 담아 떡과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텃밭 가꾸기



환자와 보호자의 소진 예방을 위하여 옥상 정원에서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였다. 작지만 우리의 텃밭을 만들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오랜만에 흙의 촉감을 느끼며 힐링할 기회가 되었다.

▶ 통증 캠페인



5월 26일 5월을 맞이하여 통증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원내에 있는 환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통증 교육을 진행하였고,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 비대면 음악요법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요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ZOOM을 이용하여 요법치료를 연계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헤드폰을 제공하였다.

▶ 보호자 소진 예방

보호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간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매주 1회 원내 요법을 진행하고 있다.

▶ 차 나눔 행사

환자 및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따뜻한 차와 쿠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교 원주교구 보건의료

▶ 2021년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천주교 원주교구 보건의료(保健司牧: Health care ministry)은 2008년 설립 이후 치유를 통한 복음화를 위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영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사목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일반인 대상 15회 차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6월 5일~6월 26일 4회에 걸쳐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였으며 37명이 수료하였다.

천주의 성모한의원

▶ 생일잔치



생신을 맞은 입원 환자에게 생일 축하와 선물을 전하고 사진 촬영을 해드리며 환자와 가족 간에 추억을 만들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부활절 행사

4월 3일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부활절 다과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 맞아 생화 카네이션과 다과를 전달하고 어버이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아버지의 사랑과 소

중함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 통증 캠페인 “암성통증, 조절 할 수 있습니다.”



5월 13일 일반의원 1층 로비에서 “암성통증, 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암성통증에 대한 관심 유발과

올바른 지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통증 조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별가족 우편 발송

5월 21일 사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단체 모임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모임을 대신하여 가족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제1회, 2회 이사회

1월 28일, 4월 19일 코로나19로 Zoom 회의로 진행하였다. 1회 이사회에서는 황관옥 회장이 2020년 결산과 사업 보고 및 2021년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을 보고하고, 임원 선출, 정기총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2회 이사회에서는 72호 협회지 발간과 제21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우수봉사자상 수상 조건 변경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 제14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2021년 기관대표자회의

2월 25일 코로나19로 Zoom 회의로 진행하였다. 2020년 결산과 사업 보고 및 2021년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을 보고하고, 4월 20일 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황관옥 회장 및 현 임원 전원의 연임을 의결하여 등기 완료 후 대전시청에 보고하였다. 기관대표자회의에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최진영 센터장의 2021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